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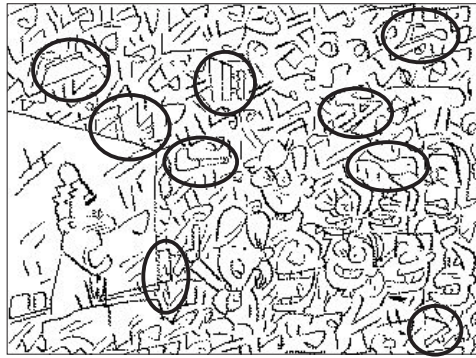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08>



찾아(보)세(요) 은행잎, A자, 송사리, 셔플록, 고추, 고슴도치, 비둘, 열대어, 음표

뱃사공과 철학자

어느 철학자가 나뭇배를 탔다. 그가 뱃사공에게 철학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뱃사공이 고개를 저었다. "한심한 사람이군. 자넨 인생의 3분의 2를 헛살았구먼. 그렇다면 문화에 대해서는 공부했나?" 역시 뱃사공이 배우지 않았다고 하자 철학자는 뱃사공에게 인생의 3분의 2를 헛살았다고 말했다. 강의 절반쯤을 건너갈 무렵, 갑자기 배에 물이 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해엄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철학자가 해엄을 못 배웠다고 말하자 뱃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헛살았군요."



지난주 정답

춧불, 대접, 새, 열대어, A자, 담배 피이프, 팽이, 다리미, 음표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문영은 <광주시 남구 백운동> 최미자 <광주시 동구 소태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96년 1월 23일 전두환·노태우 기소

80년대 후반까지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도'들에 의한 '사태'라는 명어를 쓰고 광주 시민들에게 숨겨진 역사로 치부되어왔다. 5·18이 처음으로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는 88년 출범 직후 '민주화추진위원회'(민화위)를 출범시켰고, 민화위는 5·18을 '광주민중화운동' 및 '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사태'라는 단어를 떼어냈다.

이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시작했다. 광주민중항쟁생명의장 장동년 등이 중심이 되어 1994년 5월13일에 전두환 등 17명의 장군과 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했다. 1년 2개월 만인 1995년 7월18일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포함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검찰은 5·18집안경위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엄격한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과 계엄군간에 적대감으로 인한 살상행위까지 발전,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태를 촉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로 민주화세력들의 역사 잡기 운동에 제동이 걸린 듯 하였지만 1995년 10월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의 비자금에 폭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해 11월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전격 구속되고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본부가 발족 되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어서 12월3일에는 전두환 전대통령도 구속되었다. 12월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996년 1월 23일 노태우, 전두환 등 5·18관련자 8명이 기소되었다. 1996년 8월26일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전두환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자신의 상고포기가 결국 2심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노태우도 상고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1997년 항소심 형량이 확정, 길었던 5·18 역사의 바로잡기의 노력의 첫 막이 끝났다.



1996년 1월 23일 군사반란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가운데)·노태우(왼쪽)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

1996년 1월 23일 군사반란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가운데)·노태우(왼쪽)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 11월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전격 구속되고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본부가 발족 되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어서 12월3일에는 전두환 전대통령도 구속되었다. 12월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996년 1월 23일 노태우, 전두환 등 5·18관련자 8명이 기소되었다. 1996년 8월26일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전두환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자신의 상고포기가 결국 2심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노태우도 상고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1997년 항소심 형량이 확정, 길었던 5·18 역사의 바로잡기의 노력의 첫 막이 끝났다.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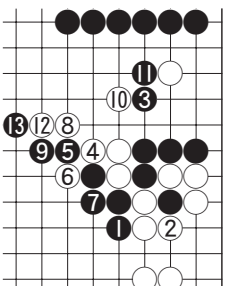
루이 9단 여류 명인 등극

루이 나이에이 9단이 여류명인전에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루이 나이에이는 지난 21일 서울시 여의도 스키아 바둑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9기 STX배 여류명인전 18전3번기 2국에서 도전자 조혜연 7단을 상대로 242수 만에 백반집승을 거두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통산 7번째 여류명인전 우승이다. 루이 나이에이는 초반에는 다소 밀리다가 중반 우반 전투에서 승리, 집을 키워나가며 주도권을 잡았다.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각 30분 40초, 초읽기 3회의 준 속기전이다. 상금은 우승 1천200만원, 준우승 500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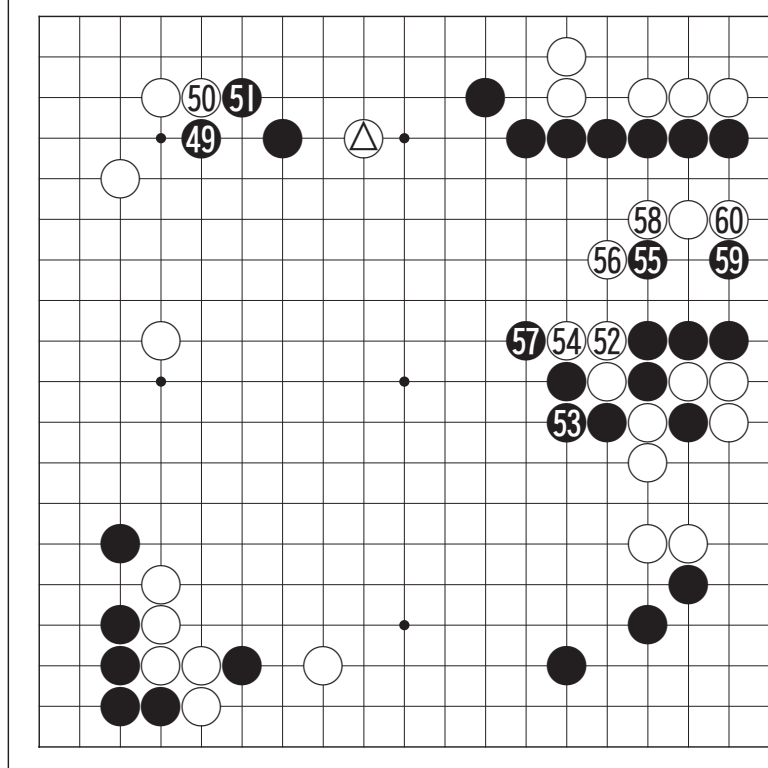
제5회 KBC사장배 초등 최강부 결승전

승기 뒤의 위기 4보(49~60)

백 △가 양문영군이 장지해준 시한폭탄이 있음이 곧바로 드러났다. 김영환군은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흑 49, 51로 막아갔으나 곧이어 백 52로 움직이자 비명을 내지른다. 이쪽은 위나 흑이 두터운 곳이라 흑이 안는 형태가 되어서는 흑 낙점이 간혀 흑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김영환군은 붉게 얼굴을 물들인 채 고심을 거듭하던 흑 59로 두었는 데 과연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그러면 백은 4로 움직이는 정도인데 13까지 막히고 나면 백이 오히려 곤란해서 흑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백 52로 흑을 빠져나온 것은 위험한 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환군의 실수로 백 58로 봉쇄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흑 낙점이 간혀 흑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김영환군은 붉게 얼굴을 물들인 채 고심을 거듭하던 흑 59로 두었는 데 과연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1082>

Would you like to rent one? 빌리시렵니까?

A: Can I help you?
B: Do you have any mid-size cars available?
A: We sure do. Would you like to rent one?
B: Yes, please.

A: 뭘 도와 드릴까요?
B: 중형차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네, 그럼요. 빌리시렵니까?
B: 네, 부탁드립니다.

- * available : 이용 가능한
* mid-size car : 중형차
* 이번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방 있습니까?
=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for this weekend?
* 콘서트 입장권 있습니까?
= Do you have any tickets available for the concert?
* 대형 화면 텔레비전 있습니까?
= Do you have any big screen TV availabl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82>

申(もう)し譯(わけ)ございません。 대단히 죄송합니다

A: 恐(おそ)れ入(い)れます。先(さき)ほどお電話(でんわ)いたしましたし金(かね)ですが 電話(でんわ)が途(と)ちゅうで切(き)れてしまいました。
B: あ、そうですか。申(もう)し譯(わけ)ございません。
A: 小野田(おのだ)部長(ぶちょう)に一度(いちど)回(まわ)してくださいませんか。

A: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전화 드린 겁니다. 전화가 도중에 끊어져 버려서~
B: 아, 그러셨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A: 오노다 부장님께 다시 한 번 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途中(とちゅう)で切(き)れる : 도중에 끊어지다
回(まわ)る : 돌리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59>

咱们谁跟谁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A: 都 1 1 点了。我要走了。
dōu shì yí diǎn le. wǒ yào zǒu le.
모두 하나다한 걸. 어. 어야 조우려.
B: 我送你回家吧!
wǒ sòng nǐ huí jiā ba!
우. 널. 우리 집으로 보내!
A: 我不想麻烦你了。
Wǒ bù xiǎng máfan nǐ le..
워 부마실 마판 니 걸.
B: 客气什么, 咱们谁跟谁呀?
kèqì shénme. zánmen shuí gēn shuí a?
커기 셴조. 자넨 쉐인 션어 마?
A: 벌써 11시네. 나 가야겠다.
B: 내가 좀여 배려다 풀게.
A: 너 귀찮게 하지 않아.
B: 뭐 그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送 [sòng] 배웅하다, 파랏다, 주다
麻烦 [máfan] 귀찮다, 험기시다
客气 [kèqì] 작정하다, 험술하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383-1605

한자 이야기 <699>

玄關(현관)
검을 현, 빛장 관

현관(玄關)의 글자 뜻은 검은 관문, 또는 오묘한 입구가 된다. 일반적으로 '현관' 하면 집안으로 들어서는 입구를 지칭하지만, 한자에서 보이는 뜻은 다르다. 이는 본래 선종(禪宗)에서 쓰이던 용어로 깊고 오묘한 이치에 통하는 관문, 즉 참선(參禪)으로 드는 어귀를 이른다. 불교를 일컬어 '현문(玄門)'이라고 부른다. 불교의 이치가 깊고 오묘해(玄) 절대의 피안인 이상경으로 들어가는 문(門)이라는 비유에서 나온 용어이다. 따라서 현관은 그런 불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 선(禪)의 세계에 들어서는 시작이란 의미이며, 선종사찰의 객전(客殿)에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내는 불교용어이다.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 처음 접하는 문이나 길을 일컫는 말이 바로 현관이다. 허상과 편견을 버리고 진리에 이르는 첫 관문을 의미한다. 선종의 중요한 서적인 '벽암록(碧巖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날카롭게 질문하거나 남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려던 쇠사슬과 깊고 묘한 이치로 들어가는 현관을 격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집안으로 들어서는 입구를 가리키는 용어가 된 셈이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리빙 센스

오래된 원두 확인하기

커피 메이커를 이용해 원두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원두를 사용해야 신선하고 깊은 커피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 ▲원두 끓여보기
오래된 원두를 사용해 커피를 끓이면 거품이 일어나지 않거나 커다란 거품이 생겨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다.
또 크립을 넣었을 때 덩어리지면서 굳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 원두입니다. 오래된 원두로 끓인 커피는 끓이고 난 후에 투명함이 없어지면서 탁한 느낌을 줍니다.
▲찌꺼기 활용
커피를 끓이고 난 원두 찌꺼기는 한 곳에 모아서 방향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그릇에 담아두면 훌륭한 장식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칼이나 바늘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두커피 찌꺼기에는 유지방이 많이 남아있어 칼과 바늘을 보관해 두면 쉽게 녹이 쉽지 않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23일(음 12월 16일 壬戌)

- 子 36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 48년생 어려움은 잠시 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60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72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 84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행해야 득이 있다. 행운의 숫자: 22, 26
丑 37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49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가 된다. 61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라. 73년생 편안한 하루이나 큰 득은 없다. 85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지만 갖는다. 마음 편히 일하라. 행운의 숫자: 21, 27
寅 38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리라. 50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재워지리라. 62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74년생 마음이 갈라질까 이다.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 할 터. 행운의 숫자: 24, 16
卯 39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 백배 하리라. 51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 있다. 63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 어려운 일도 풀리리라. 75년생 좋은 옷 입고 출근하라. 행운의 숫자: 17, 31
辰 40년생 가정불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니 서로서로 양보하라. 52년생 구설수가 타인으로 부터 생길 수도 있다. 64년생 오늘은 인연운전을 해야 하리라. 76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일생이 조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18, 30
巳 41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신사를 계획하라. 53년생 인생은 연줄이다 멋지게 보내라.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7년생 지혜롭게 지내고 정도를 걸으면 마음은 밝아진다. 행운의 숫자: 14, 33
午 42년생 식복이 넘치나 조금은 해야 할 것이다. 54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66년생 새 문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8년생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01, 45
未 43년생 듣기 좋은 말은 듣지 마라 주의하여 들리라. 55년생 다투면 손해 양보하면 득이 된다. 67년생 지금은 고생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7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며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02, 44
申 44년생 은 식욕이 평안하다. 56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68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인다. 80년생 돈이 생기나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20, 28
酉 45년생 알뜰살뜰 지내야 손실이 없고 대손을 막는다. 57년생 나쁜 일이 찾아 다닌다. 주의해야 할 것이다. 69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81년생 인력을 배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12, 35
戌 46년생 자녀의 주변도 살펴봐라.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다. 58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걱정은 없다. 70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라 마음이 현란하다. 82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행운의 숫자: 23, 25
亥 47년생 수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59년생 결정은 내일로. 소제가 보인다. 71년생 오래 동안 마련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83년생 초고후한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03, 4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